

중국 노승에 대한 김창업(金昌業)의 관심과 그 시대적 의미

유정열*

1. 들어가는 글
2. 노승과의 만남 및 그에 대한 관심
3. 노승에 대한 관심의 실체
4. 실제 대상과 회구 대상의 괴리
5. 마치는 글

<국문초록>

본고는 김창업이 중국 각산사 노승에게 보였던 관심의 실체 및 그 관심에 담긴 시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노승에 대한 김창업의 관심은 자신이 오래전부터 견지하고 있던 반청의식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노승을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무리한 이해는 중국 연계 지역에서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를 만나고 자한 김창업의 열망이 빚어낸 것이었다. 이를 통해 중국에 다녀온 이후로도 여전히 반청이라는 이념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었던 김창업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념에 견인 당해 자신이 만난 중국의 인물을 실제로는 반청인사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려는 양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청나라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복잡한 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핵심어: 김창업, 각산사 노승, 대청인식, 연계 지역,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

1. 들어가는 글

김창업(金昌業, 1658~1721)은 1712년 동지정사(冬至正使)가 된 큰형 김창집(金昌集, 1648~1722)을 따라 중국에 다녀왔다. 그는 중국에서 한인(漢人)과 만주인(滿洲人)을 가리지 않고 현지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그것은 그가 문인이나 관리들 뿐만 아니라 승려나 도사와도 거리낌 없이 교류했다는 사실이다.

기실 김창업의 『연행일기』(燕行日記)를 읽다보면 그가 승려나 도사와 만나는 장면을 빈번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만남은 대개 단편적이다. 더욱이 수차례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주제를 놓고 나름의 토론을 벌이기도 했던 중국 문인과의 만남처럼 심도 있는 대화가 오고간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목을 끄는 만남이 하나 있다. 각산사(角山寺)에 거주하고 있던 어느 노승과의 만남이 그것이다. 김창업은 조선에 돌아온 이후로도 다른 승려나 도사와 달리 그에 대해서만큼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다.¹⁾ 이러한 유다른 관심 속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선행연구에서는 김창업이 노승과의 만남을 통해 명리로부터 초탈한 자신의 내면의식을 토로하였다는 간단한 언급을 내놓은 바 있다.²⁾ 노승에 대

1) 김창업은 조선에 돌아온 이후에도 중국의 몇몇 문인들과 교류를 이어나갔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만주인 관리 조화(趙華)의 스승인 절강(浙江) 출신 문인 양정(楊澄)과 각산사에서 공부 중이던 수재(秀才) 정홍(程洪)을 들 수 있는데, 『노가재집』(老稼齋集) 권5에 수록된 시들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승려나 도사 가운데 각산사 노승 외에 다른 인물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2)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58면, 168면.

한 관심이 김창업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것은 선행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짧은 언급만으로는 노승에 대한 김창업의 관심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그 관심을 ‘명리로부터의 초탈’이라는 키워드로 읽는 것도 적절한지 않다고 판단된다.³⁾ 이에 본고는 김창업이 노승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경위를 살펴본 다음, 노승에 대한 관심의 실체 및 그 관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하려 한다. 노승에 대한 관심은 김창업의 삶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대청인식(對淸認識)과 더욱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특히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시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마지막에는 청나라와 관련해 조선 문인들이 보여준 하나의 문제적 양태를 조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으리라 본다.

2. 노승과의 만남 및 그에 대한 관심

김창업은 북경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행루트 부근의 명산[각산(角山), 의무려산(醫巫閼山), 천산(千山)]을 유람했다. 그런데 그의 유람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다. 생소한 곳을 유람하기 위해서는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이 있어야 했으니, 그 역할을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이는 그곳이나 그 주변에 거주하는 승려나 도사일 것이다. 아울러 명산을 제대로 유람하자면 하루 이상 묵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산 속의 사원에서 신세를 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김창업은 유람하는 중 여러 승려, 도사의 도움을 받고 그 과정에서 그들과 교분을 나누었다.⁴⁾ 김창업과 승려, 도사의 만남은 예견된 일이

3) 한편 박지선, 앞의 글, 같은 면에서는 노승과의 만남을 성리학에만 매몰되지 않고 불교와 도교를 수용한 김창업의 열린 의식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성급한 결론이라 판단된다. 노승과의 만남이 김창업에게 사상적 측면에서 감화를 준 모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김창업은 방문한 사원에서 대체로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모든 승려와 도사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간혹 야박하기 그지없는 완악한 인물을 만나기도 한다. 한편 북경 체류 중에는 중국의 승려는 아니지만, 티벳에서 온 라마승을 여러 차례 대면

었던 셈이다.

김창업이 돌아오는 길에 첫 번째로 유람한 곳이 바로 각산사다. 각산사는 산해관(山海關) 북쪽에 위치한 각산에 있는 절이다.⁵⁾ 김창업은 1713년 2월 23일 사행단에서 벗어나 당초 하루 계획으로 각산사 유람을 떠난다. 전날 눈이 많이 내려 모두 그의 유람을 만류했지만 그는 듣지 않고 과감히 길을 나선다. 천신만고 끝에 절에 다다르지만 얼마 구경도 못했는데 해가 기울기 시작하고, 그는 마침내 이튿날 일찍 내려갈 요량으로 절에서 하루 묵기를 결정하고는 여기저기를 구경한다.⁶⁾

아울러 그곳에 기거하며 공부하고 있던 수재 정홍을 만나, 그날 밤과 이튿날 아침 두 차례에 걸쳐 과거 제도 및 시를 소재로 필담을 나누기도 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추후 서로 서신을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별주를 기울인다.⁷⁾ 그러던 중 김창업이 묵은 방에 원래 기거하던 승려가 찾아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문제의 노승이다. 노승이 등장하는 장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조금 있으려니까 남쪽 강[南坑]에 기거하는 노승이 찾아왔다. 소년[정홍을 가리킴-인용자]이 일어나 맞으며 강 위에 앉게 하였다. 내가 나이를 물어 보았더니 소년이 대답하기를 74세라고 한다. 그리고 소년은 글로 쓰기를,

“이 스님은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3품 벼슬을 지내신 분입니다.”

한다. 나는 묻기를,

“어찌하여 공문(空門)에 몸을 의탁하고 계신 것이요?”

하였더니, 소년이 대답하기를,

하기도 한다. 김창업은 이들에 대해서는 주로 외모를 비롯한 간단한 정보만을 기록해 놓았을 따름이다.

5) “山海關在長城之內。關之北十里，有山曰角山。緣山而上十里，倚長城而有寺，曰角山寺。”(洪大容. <角山寺>, 『燕記』, 『湛軒書』外集 卷9, 한국문집총간 제248책, 286면)

6) 金昌業, (二月)二十三日 條,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제33책, 307~314면.

7) 金昌業, (二月)二十三日 및 二十四日壬申 條,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제33책, 307~319면.

“벼슬을 물러난 뒤 늙고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이곳에 와 의탁하고 계십니다.”

한다. 노승은 한인(漢人)으로서 뜻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처럼 일찍 알지 못하여 물어 볼 수 없는 것이 한스러웠다.⁸⁾

이것이 김창업과 노승의 만남의 진말이다. 정홍을 통해 제시된 노승의 간단한 내력 및 노승에 대한 김창업의 짧은 인상을 확인할 수 있을 따름이다. 두 사람이 실제로 대면한 것은 아주 잠깐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은 상대에 대한 관심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김창업이 빨리 떠나야만 했던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창업은 그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한탄함으로써 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김창업이 노승에게 관심을 표명한 이유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김창업의 발언에 의하면 그 이유는 노승이 ‘뜻 있는 한인’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김창업은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가진 것일까? 여기서서는 일단 의문만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은 다음 장에서 내놓기로 한다.

김창업은 조선으로 돌아온 이후로도 노승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삼년 만에 약속대로 정홍에게 서신을 부치며 비로소 노승의 성명 및 내력에 대해 묻게 된다.⁹⁾

노승은 서하(西河) 평요(平遙)¹⁰⁾ 사람으로, 성은 양(楊)이고 이름은 문성(文成)이며 자(字)는 명해(名海)입니다. 본래 대장 휘하의 기병이었는데 성품이 호탕한데다 말 타기와 활쏘기를 잘하고 특히 창법에 밝았

8) “俄而南航老僧至，少年起立迎坐炕上。余問其年，答曰：‘七十四。’少年書曰：‘此僧不可輕視，亦曾作過三品官。’余問曰：‘何以托跡空門？’答：‘罷職之後，老而無局，故托寄于此。’想是漢人之有志者，不早知如此，不能問話，可歎。”(金昌業, (二月)二十四日壬申條,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제33책, 319~320면) 번역은 『燕行日記』(『국역 연행록전집』IV, 민족문화추진회, 1976), 453~454면의 것을 가져오되 필자가 조금 수정했다.

9) “既歸三年，寄少年書，始問其人姓名來歷。”(金昌業, <寄角山寺僧序>, 『老稼齋集』卷5, 한 국문집총간 제175책, 99면) 이하 『노가제집』의 인용 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10) 서하(西河) 평요(平遙): 산서성(山西省)에 있던 군(郡)과 현(縣)이다.

습니다. 부총(副摠) 조양근(趙良根)이 그를 특별하게 여겨 친총(千摠)으로 발탁하며, “이 사람은 장대하고 기위(奇偉)하여 훗날 좋은 장수가 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도적 토벌에 누차 전공을 세워 마침내 회원장군(懷遠將軍) 직에 올랐습니다. 임지에서 근무할 때 청렴하고 매사에 조심하였으며 병졸을 어루만지고 백성을 구휼하였으니 고인(古人)의 풍모가 있었습니다.

얼마 못되어 조부총이 상관의 명령을 잘 받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총독에게 무고를 당했습니다. 연좌된 하급관리 24인 모두 당고(黨錮)¹¹⁾의 별로 단죄될 뻔 했는데 마침 특지(特旨)가 내려 좌천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지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혹자는 부임하기도 하고 혹자는 쓰임을 기다리기도 했으나, 양문성은 홀로 태연자약하며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혹자가 그에게 부임하기를 권유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변변찮은 녹봉에 허리를 굽히는 짓을 팽택(彭澤: 도연명陶淵明을 가리킴-인용자)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장부의 진퇴에는 때가 있는 법이다. 변변찮은 것에 다시 어찌 내 몸을 구속당하랴.”

마침내 산으로 들어가 승려가 되어 속세와의 인연을 사절한 것이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이미 연로한 나이인데도 기개는 더욱 호기롭고 씩씩하여 비분강개함이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유풍(遺風)¹²⁾ 못지 않습니다. 일찍이 사람들에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남은 그 음도 나그네로 붙어사는 것이요 그 감도 나그네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그네 길은 고생스럽기만 하고 부질없이 뛰어다닐 뿐이다”라고 말하고는, 마침내 홍우(弘寓)라 자호(自號)하고 관연(寬緣)이라 산명(山名)을 정했습니다.¹³⁾

11) 당고(黨錮): 일정한 무리에 딸린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벌하는 일을 가리킨다.

12)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유풍(遺風): 하북성(河北省) 북부와 산서성 서부 지역에 위치했던 연나라와 조나라에는 우국지사(憂國之士)와 비분강개지사(悲憤慷慨之士)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僧西河平遙人也，姓楊，名文成，字名海。初爲幕下馬軍，性豪爽，善騎射，尤精槍法。副摠趙良根奇之，拔授千摠曰：‘是人魁梧奇偉，自是異日良將。’從討賊屢戰有功，遂遷懷遠將軍之職，在任廉謹，撫兵恤民，有古人風。未幾，趙副揚以不善承奉上官，爲制臺所誣。連坐屬員二十四人，皆擬黨錮問罪，會有特旨，止擬降調。同列諸人，或赴職或待用，而楊獨夷然不屑。或勸之則曰：‘五斗折腰，彭澤不屑。丈夫進退自有時，區區雞肋，復安能繫余身爲。’遂入山削髮被緇，謝絕塵緣者，今且二十年，年紀已邁，而意氣愈豪壯，悲歌慷慨，不減燕趙遺

위는 정흥으로부터 들은 노승에 대한 정보다. 이를 통해 노승이 과거에 전도유망한 무장이었는데 상관이 무고를 당한 사건에 연좌되는 좌절을 겪은 뒤, 과감하게 관직을 버리고 불교에 입문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노승이 세상을 등진 지 오래되었으며, 현세에서의 삶을 불교적 세계관에 의거해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인지 비분강개함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위 내용을 전해 듣고 김창업은 노승에 대해 다음과 같은 생각을 내놓는다.

아! 옛사람이 충신과 의사(義士)로서 장수가 되거나 병기를 잡은 자 가운데 뜻을 얻지 못해 왕왕 선가(禪家)에 투신한 인물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선사(禪師)가 그런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선사를 보건대 모습이 웅위(雄偉)하며 의기가 침착하고 굳세니, 그가 장교였을 적에 그저 창만 잘 쓰는 용사(勇士)에 그치지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일찍이 조부총에게 인정을 받아 장군의 직책까지 이르렀으니 뜻을 얻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그 쓰임이 끝까지 갔다면 만호후(萬戶侯)¹⁴도 어찌 말할 것이 있겠는가만, 한 번 불평한 일을 당하자 마침내 승려들 속에다 스스로를 팽개치고 말았으니, 이는 어째서 인가? 알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연계(燕薊) 지역¹⁵에 예로부터 걸출한 호걸이 많다고 들었다. 아마 지금도 있을 터인데 지난번 유람에 그런 인물을 만나지 못했으니 아쉽도다! 우리 선사 역시 맞닥뜨리고서도 어긋나 지나치고 말아 젊었을 적 종군했던 일과 세상을 버리고 입산한 연유를 묻고서 함께 팔을 걷어붙이고 비분강개해하지 못했으니 내 심히 한스럽도다!¹⁶

風. 嘗語人曰: ‘人生世上, 其來也旅寓, 其去也旅歸, 客途勞攘, 枉自奔波耳.’ 遂自號弘寓, 山名寬緣.”(金昌業, 앞의 글, 99~100면)

14) 만호후(萬戶侯): 1만 호가 사는 토지를 소유한 제후(諸侯)를 가리키는 말로, 고관을 비유할 때 사용되기도 한다.

15) 연계(燕薊) 지역: 연나라가 있던 곳으로 지금의 북경을 비롯해 그 부근을 가리킨다.

16) “噫! 古人謂忠臣, 義士爲將及柄兵者, 不得志而往往逃於禪師, 豈其人也歟. 然余見師, 狀貌雄偉, 氣度沉毅, 可知其爲將, 不止一槍之勇. 而又嘗見知於趙副揚, 職至將軍, 則不可謂不得志. 使究其用, 萬戶侯豈足道哉. 而一見不平, 遂自棄於緇髡之中, 何哉? 不可知也. 余

첫 번째 단락을 통해 노승의 정체에 대한 김창업의 일차적인 생각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업이 보기에 노승은 비록 장군의 지위에 오르기는 했으며, 정치적 시련만 겪지 않았다면, 범상치 않은 그의 모습을 고려할 때, 그 정도 지위에 오르는 것에서 그칠 인물이 아니었다. 즉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서도 현실의 장애에 가로막혀 끝까지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로서 노승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도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노승의 정체에 대한 김창업의 최종적인 결론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업은 예로부터 호걸이 많기로 유명한 연계 지역에서 그런 인물을 만나지 못해 아쉬워했던 뒤에 알고 보니 노승이 바로 그에 해당하는 인물이었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두 번째로는 김창업이 노승의 삶에 대해 직접 듣고 그와 함께 비분강개함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명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점은 두 번째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김창업은 이미 노승과 대면했을 때에도 그와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을 두고 안타까움을 표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표출된 안타까움은 과거에 비해 더욱 강렬하다. 이 강렬한 안타까움은 노승에 대한 한층 더 높아진 관심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단락을 통해 확인한 두 가지 사실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문이 든다. 김창업은 연계 지역에서 호걸을 만나지 못한 것을 왜 아쉬워했던 것일까? 그리고 김창업이 노승과 나누고 싶어 했던 비분강개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강한 안타까움을 표출했던 것일까? 이에 대한 답 역시 다음 장에서 내놓기로 한다.

정홍은 “만일 이 사람을 가련히 여기신다면 시를 지어 선사해 주십시오. 어찌면 이것이 숨어있고 알려지지 않은 존재를 드러내 밝히는 한 방법일 것입니다”¹⁷⁾라고 하여, 김창업에게 노승을 위해 시를 지어줄 것을 요청한

聞燕 薊間古多奇偉豪傑之士，庶幾今亦有之，而向日之遊，未遇其人，惜乎！吾師又當面差過，未能問其少日從軍之事，與夫所以棄世入山之由而相與扼腕慷慨，余甚恨之。”(金昌業, 앞의 글, 100면)

17) “倘憐斯人，賜以題詠，或亦顯微闡幽之一道也。”(金昌業, 같은 글, 같은 면)

다. 김창업은 그 부탁에 응하여 시 한편을 지어 중국으로 부친다.¹⁸⁾ 이 시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와 분석은 다음 장에서 앞서 던진 의문들을 해명하는 과정 중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장을 바꾸어 노승에 대한 관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3. 노승에 대한 관심의 실체

노승에 대한 관심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앞장에서 소개한 노승을 위해 지어준 시의 서문 가운데, 노승의 삶에 대한 김창업의 생각이 토로된 부분을 실마리 삼아 살펴볼 수 있다. 그 부분의 첫 번째 단락에서 김창업은 노승을 충분히 능력을 펼치지 못한 인물로서 이해했다. 이는 정홍의 정보를 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일 터이다. 그런데 김창업은 그 누구보다 그러한 노승의 삶에 잘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이는 김창업의 삶을 노승의 그것과 병치시킴으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주지하다시피 김창업은 당대 노론 명문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벼슬에 나가지 않고 포의로서 삶을 마친 인물이다.¹⁹⁾ 그는 일찍이 송계(松溪: 지금의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에 집을 마련하고는 전원생활을 누리며 대부분의 일생을 그곳에서 보냈다.²⁰⁾ 표면적으로 그는 당시 전성기를 누리고

18) “遂作一詩寄之.”(金昌業, 앞의 글, 같은 면)

19) 김창업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3면에 의하면, 그의 가문은 16세기 중반 이후로 서울 장동(壯洞)에 세거하였는데, 이 때문에 18세기경부터는 장동 김문(壯洞金門)이라 일컬어졌다고 한다.

20) 김창업의 송계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다음 기록을 대략 참고할 수 있다: “初養家數畝田園在松溪, 此蓋府尹公婦翁孳奇所分也. 先君嘗作田舍, 疏治池圃, 增樹果桑, 至是遽定終老之計.”(金信謙, <老稼齋府君遺事>, 『檜巢集』 卷10, 한국문집총간속 제72책, 337면) 이하 『증소집』의 인용 면수는 이 책의 것이다. 송계가 지금의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는 박지선, 앞의 글, 17면 참조. 그리고 ‘府尹公’은 김창업의 양부 김광식(金光弼, 1616~1664)의 부친인 김상복(金尙宓, 1573~1652)을, ‘婦翁孳奇’은 김상복의 장인인 이인기(李麟奇, 1549~1631)를 가리킨다. 아울러 김창업은 이인기에게 나뉘받은 송계 땅을 물려받아 그곳에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한편 송계에서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구분현, 『老稼齋 金昌業의 東庄에 대하

있는 집안의 상황을 고려하여 소과(小科)에 급제한 이후 벼슬에 대한 뜻을 단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¹⁾ 그러나 한편으로는 당쟁 때문에 혼란했던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염증 및 그 현실의 중심에 자리하여 정치적 소용돌이에 자주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집안의 처지 등도 벼슬에 대한 뜻을 단념하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²²⁾

그러나 김창업에게 벼슬에 대한 뜻이 아주 없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치적으로 시련에 처한 집안 사정 때문에 좌절되기는 했으나, 한 번쯤 지방관을 맡아 경륜을 펼쳐보고 싶은 마음을 가졌었다.²³⁾ 그가 “내 응당 농사 배우며 늙을 것이니”²⁴⁾라고 한 젊은 날의 다짐을 잘 실천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년을 앞둔 시점에 “글렀구나 내 생이여, 이제 결국 끝장나버렸구나!/ 농사에 몸을 맡긴 채 머리 전부 하얗게 되었으니,/ 벽에 걸린 웅검(雄劍) 쓸 곳 없음을 알건만/ 가지고 와서 소와 바꾸는 일 차마 못하겠네”²⁵⁾라고 하여 무언가 소망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전원에서 늙어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강한 절망감을 표출한 것은, 아무래도 뜻을 펼칠 수

여」(『退溪學論叢』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참조.

21) “然當世名賢士類，莫不以顯隆期待，而府君乃戒家道滿盈，自小科後，遂絕意公車。”(金信謙, 앞의 글, 335면) 참고로 김창업은 24세 되던 숙종(肅宗) 7년(1681)에 진사과에 합격했다.

22) 김창업이 당쟁이 만연했던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해 김창업이 만년에 했다는 다음 발언을 참고할 수 있다: “然晚嘗語子弟曰: ‘黨論一出，雖抱經綸大才，無可爲。惟字牧之任，猶可以報國。余未遭家難，欲得一縣，惟吾所欲爲，以觀治效而止，亦已矣。’”(金元行, 앞의 글, 375면) 이 인용문 가운데 당쟁이 경륜을 지닌 인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주장을 통해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그의 부정적 인식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노론을 대표했던 김창업의 가문은 빈번하게 발생했던 당대 정세 변화에 따라 부침을 겪어야만 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박지선, 앞의 글, 13~30면 참조.

23) 각주 22번의 인용문 참조.

24) “學圃吾應老”(金昌業, <東庄夕興> 第5句, 『老稼齋集』 卷1, 15면) 이 시는 갑자(甲子)년에 창작된 작품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김창업이 27세 되던 1684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시에 대한 분석은 구본현, 위의 글, 151~152면에서 이루어진 바 있다.

25) “已矣吾生今已休，寄身農圃雪盈頭。壁間雄劍知無用，不忍持來便換牛。”(金昌業, <古劍>, 『老稼齋集』 卷3, 64면) 이 시는 신묘(辛卯)년에 창작된 작품들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이 작품이 김창업이 54세 되던 1711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1711년은 김창업이 연행을 가기 전해다.

있는 최소한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기 때문일 터이다. 이러한 강한 절망감은 어느 날 갑자기 표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마음속의 우울함이 오랜 기간 쌓이고 쌓인 끝에 한순간 터져 나온 것이라 이해해야 할 터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김창업은 표면적으로는 포의의 삶을 추구하기는 했으며 마음속으로는 경륜의 뜻을 품고 있었으며 그 뜻을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회를 얻지 못해 불우 의식에 시달렸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²⁶⁾

이상 김창업의 삶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다. 그것은 김창업과 노승으로부터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 공통점은 두 사람 모두 뜻을 온전히 펼쳐보지 못한 ‘불우지사’(不遇之士)라는 것이다. 그런데 김창업이 불우한 상황에 처했던 것은 무엇보다 혼란했던 당대 정치 현실에 휩싸인 탓이 컸다. 이점은 노승도 마찬가지다. 그는 김창업과 달리 관직을 역임하기는 했다. 그러나 상관이 무고를 당한 사건에 연좌되는 시련을 겪은 이후 관계에 염증을 느끼고 불가에 투신한 그의 이력은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뜻을 꺾어야만 했던 김창업의 경우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보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히 불우지사라는 공통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우하게 된 요인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창업이 노승의 삶에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처럼 둘 사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창업은 노승의 삶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에게 동질감을 느꼈을 법하다. 사람은 누구나 동일한

26) 그런데 당대 명문가의 자제였던 김창업에게 음서(蔭敍)로라도 관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사실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7세 되던 1694년 노론과 소론이 남인을 몰아내고 정권을 다시 잡은 갑술환국(甲戌換局) 직후, 김창업은 조정으로부터 종구품(從九品)의 내시교관(內侍敎官: 궁중의 내시들을 교육하고 훈도하는 책임을 맡았던 관리)을 제수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金信諫, 앞의 글, 337면). 이는, 평생 포의로 살겠다면 애초의 다짐을 실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이나, 당대 정치 현실에 대한 염증 때문에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차선의 방책으로 지방관 진출을 내심 염원했다고 한 김창업의 발언을 고려하면, 비록 말직일지라도 중앙관계에는 발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서 나온 행동일 수도 있다.

처지의 대상을 보면 관심을 갖게 마련이다. 특히 자신의 아픈 부분을 공유하는 대상이라면 더욱 눈길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노승에 대한 김창업의 관심은 일차적으로 그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불우지사라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창업의 관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 노승을 연계 지역의 호걸로 이해하며 그와 비분강개함을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안타까움을 표명했다. 이렇듯 노승을 연계 지역의 호걸로 이해하는 시선을 통해 노승에 대한 또 다른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김창업의 이러한 이해는 노승에게 연나라와 조나라 유풍이 있다고 한 정홍의 의견을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나라와 조나라는 연계 지역에 위치했으며 그 유풍은 비분강개한 호걸이 많았던 전통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김창업의 이해는 사실상 정홍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그것은 두 사람이 노승을 호걸로 이해한 각각의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먼저 정홍의 경우 호방한 기질을 타고난 노승이 고령의 나이에도 여전히 씩씩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김창업 역시 정홍이 들려준 정보에 근거해 그렇게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김창업의 경우 그가 남긴 다른 자료들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되는 것은 대청인식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김창업은 젊은 시절 여건만 된다면 직접 북벌(北伐)을 실행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힌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²⁷⁾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에도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 병자호란(丙子胡亂)의 기억을 떠올리며 포수를 얻어 오랑캐 군대를 무찌르고 싶다는 뜻을 밝힌 점이 확인되는바,²⁸⁾ 이를 통해 그가 복수설치(復讐雪恥)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간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중국에 들어가서는 “천도(天道)를 이제 다시 논할 수

27) “公自幼少有奇氣，常謂：‘天下無不可做之事。’與長菴李公喜朝言志，慨然謂：‘手提十萬卒，以北掃中原，是吾願耳。’”(金元行，〈從祖老稼齋公行狀〉，『漢湖集』卷19，한국문집총간 제 220책，374~375면) 한편 이러한 사실은 이경구, 앞의 글, 217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28) “龍灣城池昔壯哉，丙丁之事寧不愧。安得砲手只一千，把截三江殺胡騎。”(金昌業，〈龍灣雜詠和息庵〉第5首，『老稼齋集』卷5，103면) ‘龍灣’은 의주(義州)를 가리킨다.

있으랴/ 여전히 더러운 비린내 천지에 가득 차 있는데”²⁹⁾라고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천도가 실추되었다고 말할 정도로 암울하게 바라보기도 했다. 이상의 사실을 통해 김창업이 당대 조선의 일반적인 문인들처럼, 그리고 승명배청(崇明排淸)의 화신인 김상헌(金尙憲)의 증손답게 강한 반청의식을 지녔던 사실을 알 수 있다.³⁰⁾

아울러 중국 유람을 한 해 앞둔 1711년에 “압록강 서쪽 요동성(遼東城)인데/ 필마(匹馬)로 유관(榆關: 산해관山海關)까지 보름 노정이라네./ 계주(薊州)에서 몇 말의 술 사가지곤/ 연경(燕京) 저자에서 형경(荊卿)을 찾으려네”³¹⁾라고 한 것, 또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 “연중(燕中)은 장사(壯士)가 비가(悲歌)를 부르는 곳이니/ 만일 영접하게 되면 뒷자리에 앉히려네”³²⁾라고 한 것을 통해, 그가 그 옛날 진시황(秦始皇)을 암살하려 한 형경, 즉 형가(荊軻)처럼 당대 중국 현실에 불만을 품은 인물과의 만남을 염원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³⁾ 이는, 청나라 정권의 통치 아래 있는 당대 중원 땅에서 자기의 반청의식에 공명해 줄 수 있는 인물을 만나, 그와 의기투합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형가와 같은 인물이란 당연히 한인 출신의 호걸을 가리킬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 앞서 김창업이 중국에서 만나지 못했다는 호걸의 정체는, 그가 시에서 읊은 ‘비를 부르는 연경 저자의 형가’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승은 그에 부합하는 존재임에도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인물이었던 셈이다. 결국 이를 통해 김창업이 정홍의 의견을 추수하여 노승을

29) “天道如今可復論，尙看腥穢滿乾坤。”(金昌業，〈瀋陽感懷次雲沙韻〉首聯，『老稼齋集』卷5，105면) ‘腥穢’는 오랑캐를 비하할 때 많이 사용되는 말로, 여기서는 만주인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0) 김창업이 중국에 들어가는 도중 반청의식을 노출했다는 점은 박지선, 앞의 글과 김상조,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2005), 38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31) “鴨江西畔是遼城，匹馬榆關半月程。買取薊州數斗酒，燕京市上覓荊卿。”(金昌業，〈縣弧〉第2首 3~4句，『老稼齋集』卷3，65면) 이 작품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김창업의 아들인 김신겸이 남긴 다음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先君辛卯冬，作詠懷詩數百篇，其中有曰: ‘買取薊門數斗酒，燕京市上覓荊卿。’”(金信謙，앞의 글, 337면)

32) “燕中壯士悲歌地，萬一相迎坐上頭。”(金昌業，〈嘉平途中謹次先韻〉第2首 3~4句，『燕行填篋錄』，『老稼齋集』卷5，102면)

33) 이러한 점은 박지선, 앞의 글, 232면에서 지적된 바 있다.

호걸로 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그는 노승을 중국 내부에 존재하는 반청인사로 이해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관심을 갖기도 했던 것이다.

이제 앞장에서 남겨놓은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김창업이 막 대면한 노승을 ‘뜻 있는 한인’이라 추정할 말 속에는 ‘이 사람이 혹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담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연계 지역에서 호걸을 애타게 만나고자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앞의 단락들을 통해 해명되었다. 한편 동일한 맥락에서 그는 노승이 겪은 정치적 좌절을 청나라 정권 아래에서 한인 출신의 무관이 당한 수난으로 이해했을 법하다. 따라서 노승의 비분강개한 면모도 단순히 그의 기질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청나라 정권에 대한 불만 차원에서 나타난 것이라 이해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김창업이 노승과 나누고자한 비분강개함이란 자신은 물론이요 노승도 견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 반청의식을 매개로 한 감정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김창업이 노승의 불우한 삶에 그 누구보다 잘 공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인물로서 노승의 불우한 삶을 지적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그러나 그는 결론적으로는 노승을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 이해했다. 이는 노승을 바라보는 김창업의 시각이 결국 그를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김창업은 반청인사로서 노승에게 더욱 깊은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가 노승을 위해 지은 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각산사에 사는 80세 승려
 젊었을 적 철창 숨쉴 천하무적이었지.
 옥관(玉關)과 청해(青海)³⁴에서 수차례 횡행하여
 전공 덕에 비로소 장군직 수여받았거늘,
 불평한 일 한번 겪자 두건 벗듯 떠났으니

34) 옥관(玉關)과 청해(青海): 옥관은 옥문관(玉門關)을 가리키는데, 한(漢)나라 무제(武帝) 때 설치된, 감숙성(甘肅省) 둔황(敦煌) 북서쪽에 있는 관문(關門)으로, 군사와 교통의 요충지다. 청해는 청해성(青海省)에 있는 중국 최대의 염수호(鹹水湖)다. 둘 모두 중국 변방에 있다.

회원장군 임명장을 헌신짝 보듯 한 것이네.
 요평중(姚平仲)은 곧장 대면산(大面山)으로 들어가고
 한암(寒巖)³⁵은 국청사(國淸寺)에서 늘 밥 빌어먹었지.
 호걸은 왕왕 불가에 은둔하기도 하니
 이 승려의 나가고 물러남을 뉘 알아주랴.
 서하의 고향 집으로 돌아갈 맘 없어
 부들자리에 꿈쩍 않고 앉아 있다 백발이 되었네.
 밤마다 창 사이로 발해(渤海)의 파도 소리 들려오면
 문득 군마가 사막을 지나는지 의심한다네.
 일어나 장성에 올라 비가(悲歌)를 한껏 불러 봐도
 흥중의 비분강개한 마음 어찌 풀린 적 있으랴.
 角山寺中八十僧, 少日鐵槍人無敵.
 玉關青海幾橫行, 戰功始授將軍職.
 一見不平毀憤去, 懷遠告身視弊烏.
 姚平直入大面山, 寒巖常乞國淸食.
 豪傑往往逃禪釋, 此僧行藏誰復識.
 家在西河不思歸, 凝坐蒲團髮皓白.
 窓間夜聞渤海濤, 忽疑鐵馬行沙磧.
 起登長城放悲歌, 胸中慷慨何曾釋.³⁶⁾

먼저, “이 승려의 나가고 물러남을 뉘 알아주랴”라고 한 10구에서는 알아줄 이 없는 노승의 삶에 대한 김창업의 연민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를 통해 노승의 불우한 삶에 공감하는 김창업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편 김창업이 노승을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서 이해한 점과 관련해 주

35) 한암(寒巖): 당(唐)나라의 유명한 시승(詩僧) 한산(寒山)을 가리킨다. 한산은 절강성(浙江省) 천태산(天台山)으로 들어가 한암에 은거하며 부근에 있는 국청사(國淸寺)의 허드렛일을 돕기도 했다고 알려져 있다. 그는 출가 전 관계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던 인물로 추정되며, 그 꿈이 좌절되자 은거를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산이 은거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선희, 『陶淵明과 寒山子의 歸隱 樣相 比較』(『중국문화연구』 11, 중국문화연구학회, 2007) 참조.

36) 金昌業, <寄角山寺僧>, 『老稼齋集』 卷5, 100면.

목을 요하는 부분이 보인다. 일단 주목되는 부분은 요평중과 한암이 등장하는 7~8구다. 이들의 삶을 제시한 것은 먼저, 호걸들이 불가에 투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 9구의 구체적인 사례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두 인물 가운데 요평중을 끌어온 것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요평중은 18세에 하인(夏人)³⁷⁾과의 전투에서 공을 세우는 등 출중한 무력을 지녔던 송(宋)나라 때 인물이다. 그는 수도를 침략한 금(金)나라 장수를 사로잡아 바치겠다고 한 흠종(欽宗)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망명하여 사천성(四川省) 대면산에 들어가 석굴에 은거했다.³⁸⁾ 이를 통해 은거하기 전 그의 삶 가운데 주요한 대목들이 대개 중원을 침략한 이민족과의 싸움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이민족으로부터 중원을 수호하려 노력한 인물’로서 이해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그가 금나라와의 싸움에서 좌절을 겪고 나서 은거를 하였다는 사실은, 한인으로서 만주인 정권에서 좌절을 겪은 노승의 삶과 묘하게 조응한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으로 13~16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창업은 작품의 말미인 이 부분에서 노승의 비분강개한 모습을 구체적인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부각시키고 있다. 정홍은 노승이 비분강개함을 지니고 있다고 했을 뿐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창업이 임의로 설정해 끼워 넣은 것임을 알 수 있다. 13~14구에서는 노승이 밤마다 들리는 파도 소리를 군마의 행군 소리로 착각하고 있다고 읊었는데, 여기에는 그가 고령임에도 변방을 누비던 과거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더욱 눈에 띄는 부분은 15~16구다. 여기에서는 비분강개함을 풀어보려 노력해도 좀처럼 풀지 못하는 노승의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다. 김창업은 노승이 비분강개함을 풀기 위해 장성에 올라 비가를 부른다고 했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장면을 끼워 넣은 것일까? 일단 김창업이 노승의 비분강

37) 하인(夏人): 서하인(西夏人) 즉 대하(大夏) 사람을 가리킨다. 대하는 1038년 당구트족의 탁발씨(拓拔氏)가 세운 나라로, 중국 북서부지역인 감숙성과 오르도스 지방에 위치했다.

38) 요평중의 삶에 대해서는 陸游, <姚平仲小傳>(『渭南文集』 卷23, 『陸放翁全集』(上),台北: 世界書局, 1990), 133~144면 참조.

개함을 반청의식 차원에서 이해했다는 사실 고려하면, 이는 청나라 정권에 대한 울분을 토해내는 노승의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장성’이라는 시어에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성은 바로 만리장성이다. 주지하듯이 만리장성은 진시황(秦始皇) 때 북방 이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했다. 이런 점에서 만리장성에는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구분하는 동시에 중화와 이적이 대결을 벌인 장소로서의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김창업은, 장성이 갖는 이러한 역사적 의미를 중첩시킴으로써, 노승의 비분강개함이 중화와 이적, 즉 한인과 만주인 사이의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넉넉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노승을 반청인사로 부각시키며 작품을 끝맺고 있는 셈인데, 이와 같은 결말은 앞서 살펴본 서문의 귀결과 일치한다.

4. 실제 대상과 희구 대상의 괴리

노승이 불우지사라는 점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그러나 노승을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판단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은바, 이점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노승의 삶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문성이라는 이름으로 살펴본 결과, 『영하부지』(寧夏府志)와 『감숙통지』(甘肅通志)에 그가 순치제(順治帝) 때 영하(寧夏: 지금의 영하회족자치구 寧夏回族自治區) 지역에서 종삼품(從三品) 무관직인 유격(遊擊)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³⁹⁾ 이는 그가 변방을 안무(按撫)하는 삼품의 회원장군을 역임했다고 한 정홍의 정보와 일치하는 사실이다.⁴⁰⁾

39) 두 기록에 의하면 양문성은 순치 16년(1659)에 영하진표중영유격(寧夏鎮標中營遊擊)에 임명되었다. ‘鎮標’는 청나라 때 총병이 통할하는 녹영병(綠營兵)을 가리킨다. 녹영병은 팔기병(八旗兵) 외에 한인으로 편성된 군대였다.

40) 다만 미심쩍은 것은 양문성의 나이다. 김창업이 양문성을 만났을 때 정홍은 당시(1713년) 그의 나이가 74세라 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양문성은 1639년 무렵 출생하여

그러나 이 이외에 그가 회원장군이 되기 전에 수차례 도적을 토벌한 일 및 그가 연좌되었던 정치적 사건의 정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⁴¹⁾ 다만 이 두 가지의 정체를 당대 중국 역사 속에서 가늠해 보는 일은 가능하다. 양문성이 유격이 된 순치제 말기는 청나라 정권이 입관(入關)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다. 이 시기 중국 내부에는 반청 성향의 유적(流賊)이 성행했으며, 이로 인해 순치 연간에는 이들을 토벌하는 것이 큰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⁴²⁾ 따라서 양문성이 수차례 토벌했다는 도적 또한 이러한 세력들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입관 초기 청나라 정권은 치발령(辮髮令) 등을 내려 한인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인재선발에 있어서는 그들을 관직에 등용하는 것과 같은 회유책을 적극 사용하기도 했다.⁴³⁾ 아울러 조선 사신들은, 강희 연간에 만주인과 한인을 차별하지 않고 한인을 잘 대우함으로써 정국 안정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보고를 조정에 올리기도 했다.⁴⁴⁾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노승이 연좌된 사건을 한인에 대한 탄압 차원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만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 더구나 노승이 겪은 사건은 청나라 정권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상관이 무고를 당하고 그 수하가 거기에 연좌되는 사건은 어느 시대 어느 왕조를 막론하고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⁴⁵⁾

도리어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면 노승은 김창업의 이해와 정반대로 은거하기 이전 청나라 정권에 협력한 인물로 이해될 수도 있을 터이다. 뿐만 아니라 기실 정홍이 전해준 정보 속에서는 노승을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하나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

20세 무렵에 유격이 된 것이다. 그러나 20세 젊은 나이에 과연 그 정도의 관직에 오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으나, 혹 정홍이 양문성의 나이를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41) 노승을 발탁해준 조양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별다른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정홍이 이름을 잘못 알려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42) 이시바시 다카오, 『대청제국』(홍성구 역, 휴머니스트, 2009), 167면.

43) 김두현, 『淸朝正權의 成立과 發展』(『講座中國史』IV, 지식산업사, 1989), 161면.

44)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大東文化研究』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434면.

45) 이와 관련해 당쟁으로 혼란했던 당대 조선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심심찮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떠올려볼 수 있을 것이다.

들을 종합하면 김창업처럼 노승을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다만 불우지사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사실 조선의 문인이 연계 지역의 비분강개한 호걸에게 관심을 품었던 것은 김창업에게서만 보이는 모습이 아니다. 명칭 교체 이전에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데, 이는 중화의 호방한 인물에 대한 관심 차원에서 나온 것이었다.⁴⁶⁾ 그러나 두 차례 호란을 겪고 청나라가 중원을 차지하게 된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조선 내부에 반청의식이 팽배해짐에 따라 연계 지역의 호걸에 대한 관심의 근거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 속에는 김창업처럼 자신의 반청의식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한인 출신의 비분강개한 인물을 만나 의기투합하고 싶다는 생각이 상당수 들어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⁴⁷⁾

그런데 명나라 유민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을 입관 초기라면 그러한 인물과 만나 의기투합하는 것이 혹 가능했을 수도 모르겠으나, 김창업이 중국에 들어 간 무렵 내지 그 이후로는 그러한 인물을 만나는 것부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창업이 중국에 들어 간 1712년은 강희제 말기에 해당한다. 강희제는 청나라 정권이 입관한 후 20년이 안 된 시점에 황제의 자리에 올라, 삼번(三藩)의 난 등과 같은 중원 내부의 반청운동을 평정하는 한편 나라의 안정을 이루고 기틀을 세우며, 청나라의 전성기를 연 인물로 알려져 있다.⁴⁸⁾ 이러한 강희제의 치세를 바탕으로 청나라는 옹정(雍正)·건륭(乾隆) 연간에 이르기까지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

따라서 강희 연관을 기점으로 상당수의 한인들 또한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청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46)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의 예로 최립(崔崐, 1539~1612)의 <送柳西坰赴京師序>와 <送鄭夢與公赴京師序>([簡易集] 卷3, 한국문집총간 제49책) 등을 들 수 있다.

47) 이러한 점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의 예로 윤휴(尹鑄, 1617~1680)의 <送吳判書奉使燕京序>([白湖集] 卷24, 한국문집총간 제123책)와 홍양호(洪良浩, 1724~1802)의 <送族大父校理奉使赴燕序>([耳溪洪良浩全書](上) 卷11, 민족문화사, 1982)를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에는 중국에 들어가는 지인에게 연계 지역에서 비분강개한 인물을 찾아 의기투합해 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는 비록 타인에게 권유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바람을 투영한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48) 강희제의 치적에 대해서는 이시바시 다카오, 앞의 책, 164~184면 참조.

이와 관련해 김창업이 북경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만난 한 군병(軍兵)이 주목을 끈다. 그는 처음에는 만주인이라고 자칭했다가 나중에야 자신이 한인임을 밝힌다. 이윽고 뒤늦게 정체(正體)를 밝힌 이유가 무엇이나는 김창업의 물음에, 선대에는 한인이지만 이제 청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만주인이 되었다는 답을 내놓는다.⁴⁹⁾ 그리고 1720년(강희 59년) 동지정사로 중국에 다녀온 이의현(李宜顯, 1669~1745)도 북경으로 들어가는 도중 만난 군인으로부터 김창업이 들은 것과 비슷한 말을 듣는다. 이의현은 이 군인이 명나라 고위 관료의 후손임을 알게 된 후 그에게 명나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없냐고 묻지만, 이미 남(청나라)에게 귀화(歸化)했다는 답만 듣는다.⁵⁰⁾ 이상 두 인물의 답은 당대 한인들이 청나라 정권 아래에서의 삶에 적응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결국 이러한 한인들의 의식 변화로 인해 그와 맞물려 강희 연간 이후로 조선의 문인들이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되었으리라 보인다.⁵¹⁾

기실 조선의 문인들도 강희 연간 이후 성세를 누리고 있는 청나라의 현

49) 金昌業, (十二月)十一日庚申 條,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제32책, 425~426면. 박지선, 앞의 글, 177면에서도 이 부분을 제시하며 당대 중국에 “한인도 청의 지배를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50) 李宜顯, 『庚子燕行雜識』(上), 연행록전집 제35책, 351~352면.

51) 한편 박세당(朴世堂, 1629~1703)은 1699년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중국에 들어가는 이덕성(李德成, 1655~1704)에게 준 시에서 “연경에서 괴이치 마오 동국 사신이며/ 역수(易水)에서 비가 부르던 사람과 같지 않음을”(燕中休怪東來客, 不似悲歌易水人: 朴世堂, <贈李參議使燕> 第2首 3-4句,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제134책, 83면)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역수에서 비가 부르던 사람”이란 바로 형가를 가리키는바, 이 구절에는 결국 연제 지역에서 더 이상 비분강개한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박세당은 강희제 7년(1668)에 동지사장관(冬至書狀官)으로 중국에 다녀왔는데, 이 구절은 이 때의 경험을 담아낸 것일 터이다. 이는, 김창업이 중국에 들어가기 44년 전인 강희제 초기에, 연제 지역에서 이미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강희 연간 이후로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한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용정 연간 반청 역모 사건을 모의한 증정(曾靜, 1679~1735)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청나라 정권에서는 이러한 인물들을 대체로 엄하게 처벌했다. 이 때문에 일부 한족들은 마음속에 반청 감정 내지 의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을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일에 두려움을 느꼈을 직하며, 이것이 중국에서 한족 출신 반청인사를 만나고자한 조선 문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실을 감지했을 것이 분명하다. 김창업의 경우 강희제에게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그가 “검약함으로 고생을 견디며, 관대하고 간소한 규모로 상업을 억제하고 농업을 권장하며, 재용(財用)을 절약하며 백성을 사랑하여 50년 동안이나 통치를 하였으니 태평을 이룩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하겠다”⁵²⁾라고 한 것을 통해, 강희 치세를 성세로 평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김창업이 청나라의 현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청인사로 단정 짓기 어려운 인물을 그렇게 이해하려는 양태를 드러낸 점은 일견 모순처럼 보인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앞장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노승에 대한 김창업의 관심은 그를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귀결은 중국에 다녀온 이후 확립된 것이다. 물론 노승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가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갖기도 했지만, 중국에서 돌아와 정홍으로부터 노승의 삶의 내력을 전해 듣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와 같이 귀결 지은 것이다. 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성세를 구가하고 있는 청나라의 현실을 인정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조선의 문인이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나라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 선입견을 수정하는 일이 요구된다. 김창업은 자신이 목도한 바에 근거해 조선에서 들은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는 모습을 보여준바,⁵³⁾ 이러한 태도가 청나라의 현실을 인정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⁵⁴⁾ 그러나 노승을 반청인사로 귀결시킨 것은 김창업이 중국에 다녀온 이후로도 여

52) “以康熙之儉約，守汗寬簡之規模，抑商賈以勸農，節財用以愛民，其享五十年太平宜矣。”(金昌業，(二月)初七日乙卯條，『老稼齋燕行日記』，연행록전집 제33책，206~207면) 번역은 『燕行日記』(『국역 연행록전집』IV，민족문화추진회，1976)，361면의 것을 가져왔음. 한편 같은 부분에서 김창업은 강희제의 단점으로 너그러움이 부족하고 스스로를 내세우기 좋아하며 도량이 좁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53) 청나라 관리들의 공정한 일처리를 목도하고 청나라 사람들이 욕심이 많고 근래에 기강이 없다는 선입견을 수정한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金昌業，(一月)十七日乙未條，『老稼齋燕行日記』，연행록전집 제33책，76면.

54) 김명호，『熱河日記 研究』(창작과비평사，1990)，74면에서도 김창업이 『연행일기』에서 “놀라우리만큼 편견 없는 태도”로 청나라의 현실을 기록했다고 지적인 바 있다.

전히 반청의식을 견지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중국을 다녀온 경험이 청나라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가 오래전부터 갖고 있던 반청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다.⁵⁵⁾

사실 노승은 조선 문인으로 하여금 반청인사로 볼 수 있게끔 하는 요소들을 갖고 있었다. 그가 연계 지역의 만리장성 부근 사찰에 거주했다는 점, 비분강개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 더욱이 청나라 정권에서 좌절을 겪은 한인이라는 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러한 우연적 사실들이 김창업으로 하여금 노승을 반청인사로 이해하게 만든 일차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을 법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앞장에서 살펴본바 중국의 연계 지역에서 반청인사를 만나고 싶어 했던 김창업 자신의 열망이라 하겠다. 그 누구보다 노승의 불우한 삶에 잘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고 있으며 또 청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했을 정도로 열린 의식을 지녔던 김창업이 노승을 반청인사로 이해한 것을 보면, 그가 가졌던 열망의 크기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 열망이 반청인사를 만나기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불우지사인 노승(실제 대상)을 반청인사(희구 대상)로 이해하려는 양태를 만들어낸 것이라 판단된다. 그리고 그 열망은 반청의식과 맞닿아 있는바, 이를 통해 김창업을 속박하고 있던 반청이라는 ‘이념’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중국에서 만난 인물을 자신이 희구하는 상에 맞춰 이해하려는 양태가 김창업에서만 보이는 것일까? 필자는 김창업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를 몇 가지 찾을 수 있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김창업의 경우에 더해 이들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양태가 나타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기로 한다. 여

55) 이런 점에서 박지선, 앞의 글, 278면에서 “(김창업은) 연행을 통하여 청나라가 강희제의 치세에 힘입어 문물이 성숙되었으며, 태평성대가 이룩되었음을 목격하고는 그 실체를 인정하게 된다”라고 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지만, “직접 체험에 의하여 북벌론에 대한 허상에서 벗어”났다고 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김창업이 실제로 북벌을 염두에 두고 소식이거나 중국으로 들어가는 중 복수설치에 대한 생각을 내비쳤는지는 미상이다. 다만 노승에 대한 관심을 통해 보면 그가 최소한 감정적인 측면에서는 북벌에 대한 마음을 청산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기서는 김창업 이후 중국에 다녀온 두 사람의 경우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먼저 1780년 중국에 다녀온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박지원은 청나라의 현실과 관련해 김창업을 비롯한 전대 중국에 다녀온 인물들보다 한층 예리한 통찰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대 청나라가 번영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현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어두운 현실을 파헤쳐 보인 것이 그에 속한다. 후자의 한 예로 사상통제와 대대적인 도서편찬 사업 등을 통해 한인들을 억누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점을 들 수 있다.⁵⁶⁾

아울러 박지원은 한인들과 적극적으로 만나 그들과 대화하며 청나라에 대한 그들의 속마음을 엿보려 노력했다. 예컨대 열하(熱河) 태학(太學)에서 만난 강소성(江蘇省) 출신의 거인(擧人) 왕민호(王民皐)와의 토론에서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박지원은 거듭된 언론 탄압 때문에 극도로 말을 조심하는 것처럼 한껏 위축되어 있는 한인 지식인의 모습 및 호속(胡俗)을 따르는 것에 반항하는 것과 같은 당대 한인들의 반청적 면모 등을 포착해 기록한다.⁵⁷⁾

한편 박지원은 고금의 역사에 대해 토론하던 중 왕민호가 정도(正道)보다는 결과를 옹호하는 역사관을 피력한 것을 두고, 거기에 청나라에 대한 왕민호의 비분강개한 마음이 은연중 표출되어 있다는 발언을 삽입해 넣음으로써,⁵⁸⁾ 그를 내심 반청인사로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⁵⁹⁾ 그러나 박지원의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는 것이 온당할 터이다. 먼저 왕민호가 내놓은 결과론적 역사관은 선행연구에서 지

56) 박지원에 대한 이상의 내용은 김명호, 앞의 책, 83~86면 참조.

57) 김명호, 같은 책, 84면 참조.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왕민호와 의 토론 과정에서 당대 한인들의 반청적 면모가 드러난 것이 바로 왕민호가 반청인사임을 증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58) 朴趾源, <鶴汀筆談>(『熱河日記』, 『燕巖集』 卷14, 한국문집총간 제252책), 268면. 이하 『연암집』의 인용 면수는 모두 이 책의 것이다.

59) 이와 관련해 김명호, 같은 책, 232면에서는 “이족 통치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불우한 한족 사인의 전형인 거인 왕민호의 모습 등이 필담의 전개 과정과 연암의 보충 서술을 통해 거울처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한바, 이는 왕민호에게 반청적 면모가 있다는 박지원의 의견에 동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적했듯이 청나라 통치의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한인들의 체념적이고 순응주의적 자세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⁶⁰⁾ 아울러 왕민호는 청나라가 나라를 얻은 것의 정당함을 역설하는 동시에 청나라 통치의 훌륭함을 찬탄했다.⁶¹⁾ 뿐만 아니라 왕민호의 발언이나 행동 속에서 어떤 직접적인 반청적 면모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왕민호를 청나라 통치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현실적인 한인으로 볼 수는 있을지언정, 박지원의 의견처럼 청나라에 대해 반감을 품고 있는 비분강개한 한인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말했듯이 박지원은 청나라의 현실을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관찰했다. 그런데 청나라는 중화가 아니기 때문에, 힘으로 조선을 굴복시킨 대국으로 여길 뿐 끝내 명나라처럼 섬겨야 할 나라, 즉 상국(上國)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⁶²⁾ 이렇듯 청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중화주의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 ‘현실과 명분’ 내지 ‘사실과 이념’ 사이에 서있는 박지원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다.⁶³⁾ 그가 왕민호의 역사관에서 반청의식을 읽으려 했던 것도 이러한 명분과 이념이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터이다. 이는 박지원이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시도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명분과 이념에 견인 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다음으로 1828년 중국에 다녀온 박사호(朴思浩, 1784~1854)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는 중국 사람들 중에 조선 사신의 의관을 보고 비분강개하며

60) 민두기, 『『熱河日記』의 一研究』(『역사학보』 20, 역사학회, 1963), 106면; 김명호, 앞의 책, 100면 참조.

61) 朴趾源, 앞의 글, 266면, 270면.

62) 朴趾源, <行在雜錄序>(『熱河日記』, 『燕巖集』 卷13), 242~243면.

63) 박지원의 이러한 면모에 대해서는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278~287면 참조. 여기서 박희병 교수는, 박지원이 “중화 문명의 계승 측면에서 볼 때 청이 ‘화’요, ‘화’로 자부하는 조선은 ‘이’에 불과함을 폭로함”으로써 새로운 화이론을 내놓았다는 기존의 의견(김명호, 같은 책, 125면)과 달리, 박지원이 ‘화’를 하나의 이념태로 상정하고 그것을 정신 속에서 지속시켰다는 점을 논증하는 것을 통해 그가 전통적 중화주의의 자장 속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 필자의 논의는 이 의견에 기반을 둔 것이다. 아울러 민두기, 같은 글, 90~91면, 114면에서도 박지원이 전통적 중화주의를 견지했다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화이(華夷)의 탄식을 내뱉곤 한 인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⁶⁴⁾ 그러나 정작 그가 비분강개한 인물로 지목한 강소성 출신의 거인 웅양벽(雄昂碧)은 사실 몇 차례 과거에 실패한 불우지사일 뿐, 그로부터 반청적 면모를 발견할 수 없다.⁶⁵⁾

박사호가 중국에 들어간 시기는 도광(道光) 연간이다. 김창업과 박지원이 들어갔을 때와 달리 이 시기 청나라는 국세가 기울고 있었다. 박사호는 자신이 목도한 바를 바탕으로 쇠약의 기미를 드러내고 있는 19세기 초엽 청나라의 현실을 지적했는데,⁶⁶⁾ 이는 청나라의 현실을 살피는 그의 시각이 상당히 객관적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강남 출신의 거인 주기진(朱其鎭)에게 과거에 급제하여 존화양이(尊華攘夷)의 대의를 천양해 달라고 당부하지만, 주기진이 그 말이 적힌 종이를 씹어 없애는 반응을 보이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⁶⁷⁾ 이를 통해 박사호가 존화양이라는 이념에 견인 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것이 웅양벽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끼쳤던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박지원과 박사호 또한 중국에 들어가 목도한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면서도 각자가 견지하고 있던 전통적 중화주의와 존화양이라는 이념에 붙들린 나머지 김창업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만난 중국의 인사를 실상과 다르게 이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자신이 견지하고 있던 이념에 이끌려 중국에서 만난 한인들에게 반청인사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양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을 알려준다.

우리에게 중국은 유사 이래로 늘 주시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단지 중국이 문화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배움의 대상이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중국의 흥망성쇠가 이웃나라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

64) 朴思浩, <規國>〔留館雜錄〕, 『心田稿』二, 연행록전집 제85책, 445~446면.

65) 朴思浩, 『應求漫錄』(『心田稿』三, 연행록전집 제86책), 12~13면.

66) 봉화가 퇴락한 모습을 보고 군비가 소홀하다고 생각한 것, 상을 주는 일이 많이 줄어들어 상황을 보고 국가재정이 모자라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朴思浩, <規國>, 위의 책, 137~138면.

67) 朴思浩, <春樹清譚>, 『應求漫錄』, 위의 책, 32~33면.

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국경이 맞닿아 있는 우리에게 중국의 정세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는 중원의 주인이 중화인가 이적인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라 하겠다. 성과의 차이는 있겠으나 김창업, 박지원, 박사호가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한 것도 이 점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터이다.

그렇지만 청나라는 역시 조선의 문인들에게 간단한 대상이 될 수 없었다. 먼저 청나라는 이민족이 한인 국가를 무력으로 멸망시키고 세운 국가였다. 그리고 조선을 두 차례나 침략해 굴복시킨 국가이기도 했다. 더욱이 그들이 멸망시킨 국가는 조선에 재조지은(再造之恩)을 베풀어 주었다고 여겨지는 명나라였다. 따라서 조선의 문인들은 청나라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에 앞서 ‘중화와 이적의 준별(峻別)’, 그리고 ‘복수설치’와 ‘대명의리(對明義理)’ 같은 점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 세 사람이 견지했던 이념은 이러한 배경 아래 뿌리내리게 된 것일 터이다. 그리고 그렇게 뿌리내린 이념이 청나라와 관련해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음 직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양태는 청나라에 대해 온전히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지 않았던 조선 문인들의 복잡한 심사가 빚어낸 것이라 하겠다.

5. 마치는 글

지금까지 김창업이 중국 각산사에서 만난 노승에게 유다른 관심을 가졌던 것에 주목하여 그 관심의 실체가 무엇이며 그 관심에 담긴 시대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찰해 보았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밝힐 수 있었다.

먼저 김창업이 노승의 불우한 삶에 공감하면서도 자신이 오래전부터 견지하고 있던 반청의식에 동조해 줄 수 있는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에 대한 관심을 귀결시켰음 밝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노승을 반청인사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며, 이는 중국 연계 지역에서 한인 출신의 반청인사를 만나고자한 김창업의 열망이 빚어낸 것

임을 밝혔다. 그리하여 누구보다 노승의 불우한 삶에 잘 공감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동시에 중국에서 열린 의식을 보여준 김창업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통해, 중국에 다녀온 이후로도 여전히 반청이라는 이념에 강하게 속박되어 있었던 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념에 견인 당해 자신이 만난 중국의 인물을 실제로는 반청인사가 아닌데 그렇게 이해하려는 양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청나라에 대한 조선 문인들의 복잡한 심사를 엿볼 수 있었다.

사실 조선의 문인들이 청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려 노력하면서도 이념에 견인 당한 나머지 문제적인 양태를 보여준 경우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그 한 예로 김창업의 둘째 형인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소식(蘇軾)과 주희(朱熹)의 정통론(正統論)을 끌어와 천하를 통일했다면 그것이 바로 정통을 얻은 것이라는 생각을 내놓은 바 있다.⁶⁸⁾ 이는 청나라 정권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는 청나라 정권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는 신빙성이 부족한 예언에 기대어 한인 정권이 중원을 다시 차지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드러내기도 했다.⁶⁹⁾ 이 같은 면모는 앞서 거론한 것과 같은 이념의 영향 때문에 나타난 것일 터이다. 이외에도 여러 양태가 보이지만 본고에서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논의를 펼치지 못했다. 이러한 아쉬움은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려 한다. 이들까지 조명될 때 조선후기 대청인식의 명암이 한층 분명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68) 박희병, 앞의 책, 281면 각주 89번 참조.

69) 김창협은 <送季舅之安東卜地太白山序>(『農巖集』 卷21, 한국문집총간 제162책)에서 중국에서 진인이 일어나 중원을 다시 평정할 것이라고 한 명나라 유민 안여식(安汝式)의 예언을 소개하고 오삼계(吳三桂)의 거사를 그 예언에 견주었다. 그는 오삼계의 거사가 안여식의 예언 내용과 다른 점들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의 해석을 덧붙이며 그 예언이 터무니없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애써 강조했다.

참고문헌

1. 자료

- 金信謙, 『檜巢集』, 한국문집총간속 제72책.
金元行, 『溪湖集』, 한국문집총간 제220책.
金昌業, 『老稼齋集』, 한국문집총간 제175책.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연행록전집 제32~33책.
金昌協, 『農巖集』, 한국문집총간 제162책.
朴思浩, 『心田稿』, 연행록전집 제85~86책.
朴世堂, 『西溪集』, 한국문집총간 제134책.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제252책.
尹 鏞, 『白湖集』, 한국문집총간 제123책.
李宜顯, 『庚子燕行雜識』, 연행록전집 제35책.
崔 岵, 『簡易集』, 한국문집총간 제49책.
洪大容, 『澠軒書』, 한국문집총간 제248책.
洪良浩, 『耳溪洪良浩全書』(上), 민족문화사, 1982.

陸游, 『陸放翁全集』(上), 台北: 世界書局, 1990.

金昌業, 『燕行日記』, 『국역 연행록선집』IV, 민족문화추진회, 1976.

2. 단행본

- 김두현, 『淸朝正權의 成立과 發展』, 『講座中國史』IV, 지식산업사, 1989.
김명호, 『熱河日記 研究』, 창작과비평사, 1990.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아시바시 다카오, 『대청제국』, 홍성구 역, 휴머니스트, 2009.

3. 논문

- 구본현, 『老歌齋 金昌業의 東庄에 대하여』, 『退溪學論叢』 14, 퇴계학부산연구원, 2008.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자아인식과 타자인식-대청교섭을 중심으로』, 『大東文化研究』 39,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1, 425~467면.
김상조,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연구』, 『영주어문』 10, 영주어문학회, 2005, 29~50면.
민두기, 『『熱河日記』의 一研究』, 『역사학보』 20, 역사학회, 1963, 81~116면.

- 박지선,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292면.
- 이경구, 『17~18세기 壯洞 金門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280면.
- 이선희, 『陶淵明과 寒山子の 歸隱 樣相 比較』, 『중국문화연구』 11, 중국문화연구학회, 2007, 95~121면.

Kim Chang-up's Interest in the Old Monk of China
and its Historical Connotation

Yu, Jeongyeol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Kim Chang-up's interest in the old monk of Kaksansa(角山寺) in China, in relation to the historical background at the times.

Kim Chang-up's interest in the old monk results in interpreting him as an anti-Ching[反清] Han Chinese[漢人] man who can possibly sympathize with Kim's anti-Ching sentiment. However, this paper has found that Kim's understanding is an over-interpretation arisen from his lifelong desire to meet the Han race[漢人] anti-Ching activist in the Yeon-Kye[燕薊]area.

Throughout this, it can be concluded that Kim Chang-up has been fettered by the anti-Ching ideology even after his trip to China. Also Kim's mentality shows one aspect of tangled emotions toward the Ching dynasty that prevailed among Chosun scholar gentry.

Keywords: Kim Chang-up, the Old Monk of Kaksansa(角山寺), Recognition of Ching dynasty, Yeon-Kye[燕薊]area, the anti-Ching[反清] Han race [漢人] man.

접수일자: 2014. 3. 31.
심사기간: 2014. 3. 31.~2014. 5. 10.
게재결정: 2014. 5. 10.